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김태후

요약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1% 감소,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

- 논벼 및 과수, 경지 면적 3.0ha 이상,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음.
- 농업소득 감소 원인은 단수 감소 및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논벼), 수급 불균형과 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과수, 채소), 농가수취 가격 등락(축산)이라고 판단됨.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 이전소득은 13.5% 증가

- 농외소득(논벼 농가 제외)과 이전소득은 각각 2.2%, 13.5%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 경영주 연령 30~40대 농가는 농업 공적 보조금이 2018년보다 78.4~194.2% 증가하였음. 청장년 지원 제도 및 지자체 단위 추가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는 기타 공적 보조금이 10.9% 증가하였음.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 증가 및 국민연금 수취액 증가 영향이라고 판단됨.

소득 불평등은 심화 추세

- 평균값 및 중위값 차이, 5분위 배율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함.
- 특히 저소득(소득 1분위) 집단 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고소득 집단(소득 5분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됨.

위험 관리 제도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정책 개선 필요

- 코로나19 사태는 농산물 소비, 일손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농업 및 농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위험 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외·이전소득 관련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접근(예: 농지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01

농가소득 변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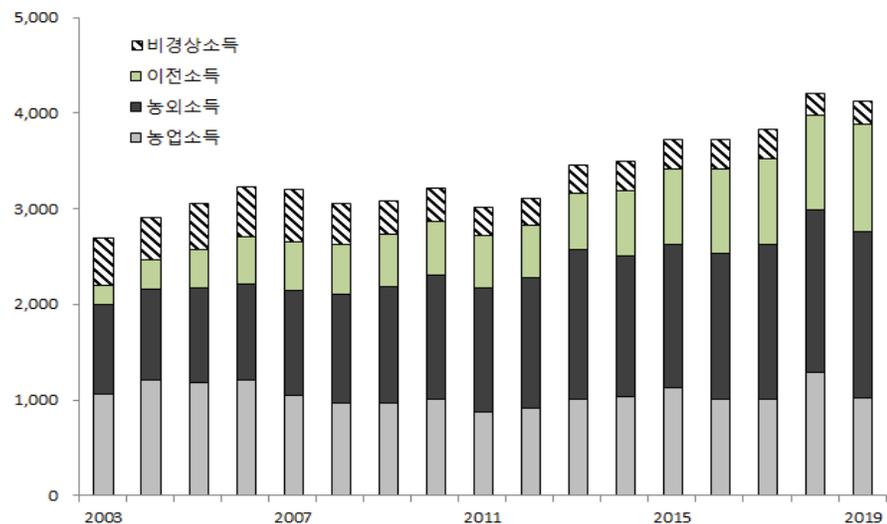
1.1. 2003~2019년 농가소득 추세

농가소득은 증가 추세, 농업소득 비중은 감소 추세

농업소득 비중은 감소, 농외 및 이전소득 비중이 증가(그림 1)

- 농업소득 비중은 2004년 41.6%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24.9%까지 줄어들었음. 2018~2019년 산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농업소득 감소폭이 커졌음.
- 농외소득 비중은 2006년 31.1%로 저점을 기록한 뒤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0년부터는 계속 40%를 상회하였음. 2019년 농외소득 비중은 42.1%임.
- 이전소득 비중은 2003년 7.6%에서 2019년 27.3%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특히 2019년에는 최초로 이전소득 비중이 농업소득 비중보다 높았음.

〈그림 1〉 농가소득 변화(2003~2019년)



주 1) 명목소득 기준임.

2) 2008, 2013, 2018년 표본 농가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하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2. 2018~2019년 농가소득 비교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 자연재해, 농판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가 농가소득 변동의 주원인

주요 품목류 농업소득은 모두 감소, 논벼 농가는 농외 및 이전소득 증가가 적어 소득 감소폭 확대(표 1)

- (논벼) 농업소득이 352만 원 감소한 반면 농외 및 이전소득이 38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쳐 농가소득이 7.8% 줄어들었음. 단수 감소와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농업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
- (과수) 재해 피해 영향으로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각각 554만 원, 659만 원 감소하였고, 농외 및 이전소득은 342만 원 증가한 결과 농가소득은 7.2% 감소하였음. 논벼 농가보다 농업소득이 307만 원 더 감소하였지만, 농외 및 이전소득이 304만 원 더 증가하였음.
- (채소) 과수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해 때문에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각각 242만 원, 248만 원 감소하였음. 과수 농가에 비해 농업소득 감소분과 농외 및 이전소득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 농가소득은 6.3% 감소하였음.
- (축산) 농업소득이 914만 원 줄어들었으나, 농외 및 이전소득이 560만 원 늘어나 농가소득이 3.5% 감소하였음.

〈표 1〉 영농 형태별·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9년 수입 및 소득				2018~2019년 증감분(증감률)			
	농가 소득	농업 총수입	농업 소득	농외·이전소득	농가 소득	농업 총수입	농업 소득	농외·이전소득
평균	4,118	3,444	1,026	2,856	-88(-2.1)	-132(-3.7)	-266(-20.6)	171(6.4)
논벼	3,025	2,811	1,003	1,760	-254(-7.8)	-309(-9.9)	-352(-26.0)	38(2.2)
과수	3,527	4,176	1,449	1,854	-274(-7.2)	-554(-11.7)	-659(-31.3)	342(22.7)
채소	2,884	3,584	1,151	1,524	-193(-6.3)	-242(-6.3)	-248(-17.7)	114(8.1)
축산	7,547	17,674	5,056	2,221	-278(-3.5)	-898(-4.8)	-914(-15.3)	560(33.7)

주: 농가소득 중 비경상소득은 표시하지 않음. 농업·농외·이전소득 합계가 농가소득보다 적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경지 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 더 많이 감소(표 2)

- 논벼, 과수, 채소, 축산 등 주요 품목류 경영비는 2018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표 4),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감소하였음(표 1). 논벼 농가는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과수 및 채소 농가는 재해 피해 영향이 농업총수입 및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쌀변동직불금은 경지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과수와 채소 농가 역시 경지 규모가 클수록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더 많이 줄어들었음. 경지 규모 3.0ha 이상 농가는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표 2〉 경지 규모별·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9년 수입 및 소득				2018~2019년 증감분(증감률)			
	농가 소득	농업 총수입	농업 소득	농외·이전소득	농가 소득	농업 총수입	농업 소득	농외·이전소득
평균	4,118	3,444	1,026	2,856	-88(-2.1)	-132(-3.7)	-266(-20.6)	171(6.4)
1ha 미만	3,554	4,702	354	2,973	-29(-0.8)	-328(-7.0)	-120(-25.3)	114(4.0)
1~3ha 미만	4,197	1,612	1,398	2,563	-145(-3.3)	-63(-3.9)	-339(-19.5)	150(6.2)
3ha 이상	6,408	10,292	3,072	3,058	-534(-7.7)	-790(-7.7)	-1,082(-26.0)	506(19.8)

주: 농가소득 중 비경상소득은 표시하지 않아, 농업·농외·이전소득 합계가 농가소득보다 적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경영주 연령 40~69세 농가의 농가소득은 증가, 70세 이상 농가의 농가소득은 감소(표 3)

- 경영주 연령 40~49세 농가의 원천별 소득은 모두 증가하였음. 농업소득은 55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농외 및 이전소득 증가가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졌음. 이는 해당 농가 중 2종 겸업농이 높은 점(2019년 비중 48.5%, 전체 비중 33.4%)과도 관계가 있음.
- 경영주 연령 50~69세 농가의 농업소득은 108만~634만 원 감소하였으나, 농외 및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13만~101만 원 늘어났음.
-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는 농업소득이 226만 원(27.7%) 줄어들었으나 농외 및 이전소득은 147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음.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는 농업 총수입 중 미곡 수입 비중이 27.4%로 전체 평균 19.3%보다 높았음. 따라서 미곡 수입 감소, 경영비 증가,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체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음.

〈표 3〉 경영주 연령별·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9년 수입 및 소득				2018~2019년 증감분(증감률)			
	농가 소득	농업 총수입	농업 소득	농외·이전소득	농가 소득	농업 총수입	농업 소득	농외·이전소득
평균	4,118	3,444	1,026	2,856	-88(-2.1)	-132(-3.7)	-266(-20.6)	171(6.4)
40~49세	5,521	8,391	1,610	3,821	540(10.9)	1,401(20.5)	55(3.5)	532(16.2)
50~59세	6,675	5,079	1,348	5,048	13(0.2)	-648(-11.3)	-634(-32.0)	602(13.5)
60~69세	4,740	4,455	1,419	3,051	101(2.2)	247(5.9)	-108(-7.0)	185(6.4)
70세 이상	2,799	1,819	590	2,000	-96(-3.3)	-114(-5.9)	-226(-27.7)	147(7.9)

주 1) 농가소득 중 비경상소득은 표시하지 않아, 농업·농외·이전소득 합계가 농가소득보다 적음.

2) 경영주 연령 30~39세 농가는 2019년 10호분이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져,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 1,114억 원은 2020년 1월에, 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2,336억 원은 2020년 2월에 지급되었음.

02

소득 원천별 소득 변화 및 원인 분석

2.1. 농업소득

2019년 전국 농업소득(추정)은 2조 3,682억 원 감소²⁾³⁾, 주요 원인은 농업총수입 감소(표 4)

- 영농 형태별로 채소(2018년 대비 6,394억 원 감소), 논벼(6,326억 원 감소), 과수(5,512억 원 감소), 기타(3,502억 원 감소), 축산(1,948억 원 감소) 농가 순으로 농업소득이 많이 감소하였음.

〈표 4〉 주요 품목류별 농업총수입·경영비·농업소득 변화(2018~2019년)

단위: 만 원,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B-A)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농업소득 (전국, 추정, A)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농업소득 (전국, 추정, B)	
평균	3,576	2,284	1,292	106,691	3,444	2,418	1,026	83,010	-23,682
논벼	3,119	1,764	1,355	22,374	2,811	1,807	1,003	16,048	-6,326
채소	3,826	2,427	1,398	26,508	3,584	2,433	1,151	20,114	-6,394
과수	4,729	2,622	2,107	16,759	4,176	2,727	1,449	11,247	-5,512
축산	18,571	12,602	5,970	27,094	17,674	12,618	5,056	25,145	-1,948

주: 특작, 화훼, 전작, 기타, 2종 겸업은 표시하지 않음. 따라서 표본 농가 평균과 영농 형태별 농업소득의 합계 및 증감률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논벼 농가 농업소득 감소 주요 원인은 단수 감소와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

- 2019년 논벼 농가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9.9%, 26.0% 감소하였음. 수확기 쌀 가격 호조에 재해로 단수가 줄었고,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추어진 영향이라고 판단됨.
- 2019년 산지 쌀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⁴⁾ 미곡 단수는 2015~2018년 평균보다 적었음.⁵⁾ 이에 더해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추어져 논벼 농가 농업수입이 감소하였다고 추정됨.

2) 2018~2019년 $[\sum_{i=1}^N (\text{농가 } ij \text{의 농업소득} \times \text{농가 } ij \text{의 가중치})]$, $j = \text{논벼, 과수, 채소, 축산}$ 를 계산하여 도출하였음.

3)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GDP 및 GNI 자료를 이용하여 2018~2019년 농업 부문 생산액(=총수입)을 계산하였음. 여기에 농업소득/농업총수입 비율(농업소득률, 2018년=36.1%, 2019년=24.9%)을 적용하여 농업소득을 추정하였음. 이 방식으로 계산한 2019년 농업소득 감소분은 2조 1,851억 원임.

4) 2019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매월 15일 조사, 일반계 정곡 20kg 기준)도 평균 4만 7,426원이었고, 2015~2018년 평균 가격은 3만 9,261원이었음(통계청 산지쌀값조사).

5) 2019년 ha당 미곡 생산량은 5.13톤/ha로 2015~2018년 5.33톤/ha보다 적었음(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농업잡수입은 2018년 156만 원에서 2019년 57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2018년 농업잡수입 중 대부분은 2017년 발동된 쌀변동직불금이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됨. 2019년 농업잡수입이 2018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논벼 농가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은 각각 18.6%, 4.7% 감소하는 데 그쳤을 것임.
- 2019년 논벼 농가 농업경영비는 2018년보다 2.5% 증가하였음. 주요 경영비 항목은 감가상각비(23.5%), 임차료(17.3%), 위탁비(11.4%), 비료비(9.0%), 광열비(6.9%), 농약비(6.1%) 등임. 이 중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주요 경영비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과수 농가 농업소득 감소 주요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태풍 피해에 따른 저품위 과실 출하 증가

- 2019년 과수 농가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11.7%, 31.3% 감소하였음. 주요 원인은 1) 사과, 배, 포도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나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고 2) 태풍 피해가 잦아 품위(品位)가 낮은 과수가 함께 출하(특히 배)되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자연재해 영향이 컸다는 점은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표 5>. 2020년 4~5월에도 냉해 면적이 4만 3,554ha에 이르는 등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표 5>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796.7	5,344.5	8,980.5
과수	1,553.2	2,854.9	4,598.2
채소	42.0	163.3	402.3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s://www.apfs.kr/front/contents/chart1ListPage.do>). 검색일: 2020. 7. 2.

-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비롯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농업소득 감소를 벌충할 만큼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음<표 6>. 이는 낮은 재해보험 가입률⁶⁾, 보장 수준 등에도 기인함.

<표 6> 영농 형태별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잡수입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평균	2.24	1.02
과수	2.46	3.25
채소	1.37	0.99

주 1) 피해보상금은 농업총수입-농업잡수입 내 세부 항목으로 계상됨. 그러나 농업잡수입 내에서 쌀변동직불금, 보험금 등을 구분할 수는 없음.

2) 『농가경제조사』 2019년 자료에는 쌀변동직불금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보상금 중 대부분이 보험금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반면 2018년 자료에는 쌀변동직불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농업잡수입 비중이 2019년보다 큼. 과수 농가의 농업잡수입 비중이 2019년에 더 큰 이유는 재해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중 2017~2019년 가입률이 10% 미만인 품목이 48.5%, 20% 미만인 품목이 69.7%였음.

- 2019년 과수 농가 농업경영비는 2018년보다 4.0% 증가하였음. 주요 경영비 항목은 감가상각비(21.4%), 유통 비용 및 기타 경비(19.1%), 노무비(14.0%), 농약비(10.9%), 비료비(8.5%), 광열비(5.9%) 등임. 이 중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주요 경영비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채소 농가 농업소득 감소 주요 원인은 수급 불균형과 작황 부진

- 채소 농가 농업총수입 및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6.3%, 17.7% 감소하였음. 2019년 상반기 양파와 마늘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영향을 주었고, 근채류도 고랭지 및 봄 배추·무 가격이 낮게 형성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9~10월 집중호우로 고랭지·가을·겨울배추, 가을·월동무 작황도 악화되었음.
- 2019년 채소 농가 농업경영비는 2018년보다 0.2% 증가하였음. 주요 경영비 항목은 감가상각비(20.0%), 노무비(14.7%), 유통 비용 및 기타 경비(13.1%), 비료비(9.4%), 종묘비(8.1%), 광열비(7.9%) 등임. 이 중 유통 비용 및 기타 경비, 노무비, 광열비 등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축산 농가 농업소득 감소 주요 원인은 농가수취가격 등락

- 2019년 축산 농가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11.7%, 31.3% 감소하였음.
- 2019년 도축 두수(소 87만 두, 돼지 1,737만 두)는 2018년(소 89만 두, 돼지 1,783만 두)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소·돼지 농가수취가격은 2018~2019년 동안 등락을 보였음. 특히 돼지 농가수취가격은 2019년 하반기에 급격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⁷⁾
- 2019년 축산 농가 농업경영비는 2018년보다 0.1% 증가하였음. 2019년 축산 농가 경영비 중 58.3%를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은 전년보다 0.1% 감소하였음. 비중이 높은 감가상각비 역시 전년보다 0.1%p 줄었음. 종합하면 축산 농가 경영비는 2018년과 차이가 매우 적었고, 축산 농가 총수입 감소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졌음.

2.2. 농외소득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2% 증가

- 2018~2019년 사업외소득은 1,155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0.5% 감소하였으나, 겸업소득은 540만 원에서 583만 원으로 8.0% 증가하였음. 이 결과 농외소득 중 겸업소득 비중은 2018년 31.8%에서 2019년 33.6%로 높아졌음.
- 2018~2019년 동안 사업외수입 중 농외임금, 농업임금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어든 반면, 기타 자본

7) 돼지 가격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생산 과잉에 따라 하반기 도축 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수입 규모와 비중은 늘어났음(표 7). 농외임금 감소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농업임금 감소 역시 경기와 판매 조건 약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 같은 기간 사업외비용도 감소하였음.

〈표 7〉 사업외소득 변화(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사업외수입	농외임금	983.3	944.3	-4.0%
	농업임금	30.2	26.2	-13.1%
	농지 임대 수입	33.3	33.1	-0.6%
	기타 자본 수입	132.9	164.0	23.3%
사업외지출	농외취업 비용	5.2	3.0	-42.1%
	자본 수입 관련 비용	19.1	14.6	-23.5%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겸업소득 중 영농 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 농업 서비스 및 음식·숙박 겸업소득 비중은 2018년 20.7%, 2019년 18.2%로 크게 변하지 않았음(표 8). 농가가 농업을 기반으로 겸업소득을 창출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2018~2019년 음식·숙박 겸업소득 규모와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제조업 및 건설업 관련 겸업소득 규모와 비중은 늘어났음. 농가가 음식·숙박업에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른 업종 일에 종사하여 소득을 벌충하였을 수 있다는 뜻임.

〈표 8〉 겸업소득 변화(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임업 및 어업	38.8	32.2	-17.0%
제조업	58.7	72.1	22.9%
건설업	52.8	63.0	19.3%
농업 서비스	25.7	32.7	27.3%
음식·숙박	86.3	73.1	-15.2%
도소매	107.3	123.5	15.1%
기타	170.3	186.2	9.3%

주: 겸업지출 중 감가상각비는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 연령 50~69세 농가는 농외소득을 늘려 농업소득 감소에 대응하였음. 특히 경영주 연령 50~59세 농가는 농업소득이 32.0% 감소하였으나, 농외소득이 12.4% 늘어났음(표 3).
- 반면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는 농외소득이 1.0% 증가하는 데 그쳤음(표 3).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는 경영주가 고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가구원 수가 2.16명으로 경영주 연령 50~59세 농가(평균 2.82명)나 전체 평균(2.36명)보다 적어 소득 활동 기회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임.

2.3. 이전소득

2018~2019년 이전소득은 989만 원에서 1,123만 원으로 13.5% 증가⁸⁾

경영주 연령 30~40대에서 농업 공적 보조금이 78.4~194.2% 증가(표 9)⁹⁾

- 경영주 연령 30대 농가의 농업 공적 보조금은 2018년 153만 원에서 2019년 452만 원으로 194.2% 증가하였음. 경영주 연령 40대 농가는 338만 원에서 603만 원으로 78.4% 증가하였음.
- 30~40대의 농업공적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청장년층에 대한 농식품부의 지원 제도(예: 청년창업농 지원 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음.¹⁰⁾ 지자체 단위에서 추가 지원한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중앙 정부(농식품부)의 농업 투자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단위의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¹¹⁾

〈표 9〉 경영주 연령대별 농업 공적 보조금 변화(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평균	222.2	268.8	21.0%
40~49세	338.2	603.3	78.4%
50~59세	327.0	373.8	14.3%
60~69세	247.4	312.8	26.4%
70세 이상	155.5	181.8	16.9%

주: 경영주 연령 30~39세 농가는 2019년 10호분이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는 기타 공적 보조금이 10.9% 증가

-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농가의 기타 공적 보조금은 2018년 428만 원에서 2019년 463만 원으로 8.3% 증가하였음(표 10). 반면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의 기타 공적 보조금 규모는 864만 원에서 958만 원으로 10.9%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기타 공적 보조금 규모는 더욱 벌어졌음.
-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의 기타 공적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 증가 및 국민연금 수취액 증가라고 판단됨.

8) 이전소득은 농업 공적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사적 보조금으로 이루어짐.

9) 경영주 연령 30대는 2019년 표본 농가 수가 10호뿐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10) 30대 특정 농가의 농업 공적 보조금 증가율이 1,300%대를 기록하였으나 이 농가를 제외해도 농업 공적 보조금이 약 84% 증가하였기 때문에 청장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유추됨.

11) 예를 들어 충남에서는 농업환경실천지원(도비+시·군비) 및 삼광벼 장려금 지원(시·군비), 전남에서는 벵경영안정대책비(도비+시·군비)·친환경농업단지장려금(도비+시·군비)·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도비+시·군비)·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지원(시·군비) 등을 별도로 시행했음(박준기 외 2019: 64-65).

〈표 10〉 경영주 연령대별 기타 공적 보조금 변화(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65세 미만(A)	427.8	463.2	8.3%
65세 이상(B)	864.1	957.8	10.9%
차이(B-A)	436.3	494.6	-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경지 규모별로는 농업 공적 보조금 증가가 이전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표 11)

- 경지 규모 구간별로 2018~2019년 농업 공적 보조금은 13.6~19.6% 늘어났음. 경지 규모가 클수록 농업 공적 보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쌀고정직불금이 면적 기준으로 지급된 결과임.
- 2019년 밭·조건불리직불금(ha당 5만 원 인상)과 친환경직불금(ha당 10만~20만 원 인상) 인상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논벼 농가와 여타 밭 농가의 농업 공적 보조금 증가율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이 추론을 뒷받침함.

〈표 11〉 경지 규모·영농 형태별 농업 공적 보조금 비교(2018~2019년)

단위: 만 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경지 규모	1ha 미만	82.2	96.4	17.2%
	1~3ha 미만	280.4	335.4	19.6%
	3ha 이상	760.8	864.1	13.6%
영농 형태	논벼	366.8	394.8	7.6%
	채소	214.9	241.9	12.5%
	과수	302.0	350.3	16.0%
	축산	471.8	708.8	50.2%
	전작	137.7	209.1	51.9%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03

소득 불평등 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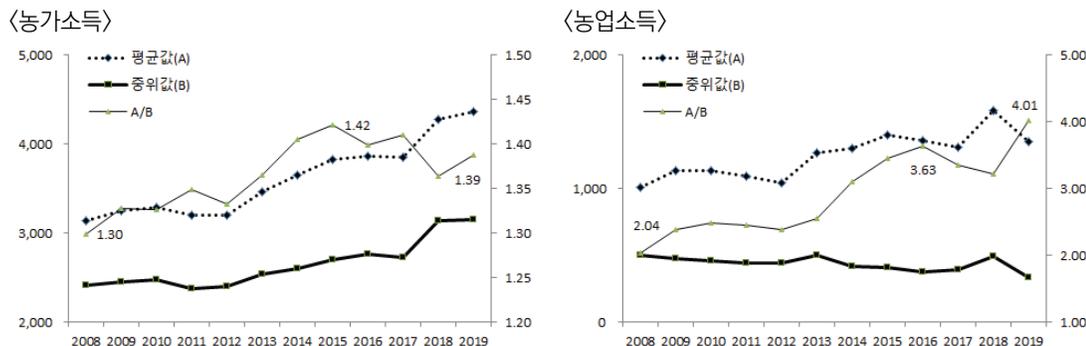
소득 불평등은 점차 심화, 특히 농업소득 격차 확대

농업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확대¹²⁾

- 농가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차이는 2008~2019년 평균 1.37이었음<그림 2 왼쪽>. 같은 기간 농업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차이는 평균 2.92였음<그림 2 오른쪽>. 농업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농외 및 이전소득으로 이 격차를 일부 좁히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그림 2> 농가 및 농업소득 평균값·중위값 변화(2008~2019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소득 5분위 배율¹³⁾ 기준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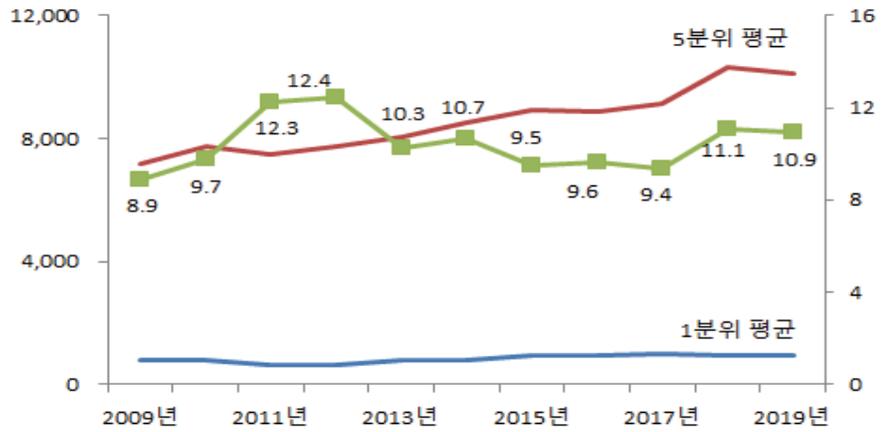
- 2009~2019년 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12.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완화되고 있음. 그러나 소득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2015~2017년 동안에도 5분위 배율은 9.4 이상이었고, 2018~2019년에는 다시 10.9로 커졌음<그림 3>. 소득 1분위 집단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소득 5분위 집단 농가소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집단의 만성적인 소득 부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12) 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차이가 커질수록 일부 농가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13)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함. 소득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 농가소득 5분위 배율(2009~2019년)

단위: 만 원



주: 적자농가 농가소득을 0으로 조정하고,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19년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은 40대 미만(18.2), 50대(13.0), 60대(10.3), 70대 이상(7.7) 순이었음. 2018년과 비교하면 40대 미만, 60대, 70대 이상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은 각각 5.8%, 12.2%, 2.9%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50대 소득 5분위 배율은 19.0%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음. 경영주 연령 50대 농가는 소득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2018~2019년 동안 불평등 정도가 커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분위 소득 농가 중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 비중이 높았음.

- 2018~2019년 농가소득 1분위 농가 중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¹⁴⁾ 농가 비중은 78.7%, 79.4%였음 <표 12>. 이는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의 농가소득이 다른 경영주 연령대 농가보다 낮다는 점(표 3)과도 상통함.

〈표 12〉 농가소득 1분위 중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 비중(2018~2019년)

단위: %

구분	경영주 연령	2018년	2019년
농가소득 1분위	65세 미만	21.3	20.6
	65세 이상	78.7	79.4
농가소득 5분위	65세 미만	66.8	63.8
	65세 이상	33.2	36.2

주: 2018년 「농가경제조사」부터는 경영주 연령을 공표하지 않고 연령 구간 또는 65세 이상 여부만을 제공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4) 2018년 「농가경제조사」부터는 경영주 연령을 공표하지 않고 연령 구간 또는 65세 이상 여부만을 제공함.

04

시사점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이하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상당 기간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때문에 농업생산액 감소(서홍석·순병민·김충현 2020),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엄진영 2020)와 노무비 인상, 농산물 판로 위축(김상효 외 2020) 등이 상당 기간 농업 소득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 역시 줄어들 수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등 위험 관리 제도 개선 필요

- 2019년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원인 중 하나는 재해보험금 등 피해보상금이 소득 감소분을 벌충하지 못한 점임(표 6). 2020년 장마 및 호우 피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농가경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위험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저조, 대상 품목 제한, 품질 하락 보상 규정 미비, 보험요율 산정 방식 등의 개선 과제를 비롯하여, 위험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 집단 대상 소득안정 정책 강화 필요

-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은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특히 농업소득을 늘리기 어려워 고소득 집단과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과 분배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2018~2019년 지급이 연기된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다수 농가의 농업 및 이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 예로 농지연금¹⁵⁾ 가입 활성화를 검토할 수 있음. 2019년 농가소득 1분위에 속하는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 중 농지 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농가 비중은 56.6%였음. 해당 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평균 소득이 1,014만 원에서 1,382만 원(36.3% 증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15)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농지 가격, 가입 연령,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매월 최대 3백만 원을 지급함. 담보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2011~2019년 8월까지 총 1만 3,820건의 가입 실적을 기록하였음.

참고문헌

- 김상호·문동현·지정훈·김민선. 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KREI 현안분석』 제 75호(2020. 6.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https://www.apfs.kr/front/contents/chart1ListPage.do>>. 검색일: 2020. 7. 2.
- 박준기·이두영·박지연·임준혁. 2019.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R8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흥석·순병민·김충현.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KREI 농정포커스』 제189호(2020. 6.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 2020.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KREI 농정포커스』 제188호(2020. 5.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_____. 각 연도. 『농작물생산조사』.
- _____. 각 연도. 『산지쌀값조사』.

KREI 현안분석

감 수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061-820-2173	jkpark@krei.re.kr
내 용 문 의	유찬희 연구위원	061-820-2022	chrhew@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78호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8.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114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